한국 가족 제도의 변화와 미혼모 문제에 관한 연구

MA. Nguyen Thi Thu Van

University of Languages & International Studie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Abstract

Unwed mothers have been considered to be an abnormal and threatening existence throughout all these times in South Korea and also a social problem to the society. But today, family patterns have faced a rapid changed in its structure so unwed mothers gradually escape from the social regulation, acquire their independent position then establish themselves as a new family model. All such phenomenon is caused not only by the rapid fluctuation in social structure but also on another side, by a huge change in perception of unwed mothers that leads to continual resistance and negotiation process.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transition of family system and its influence to the unwed mothers in South Korea. Similarly to the Western society, as well as in Korean society, the family and labor market has already gone through a huge transition process. Hence, the government needs to recognize these characters of family and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gender problem in forming the family policy.

Keywords: *Confucian culture, Confucian concept, the transition of family system, patriarchy, patriarchal family system, householder system, status-production, unwed mother, gender, social participation, social perception structure, social prejudice, adoption, family policy, negotiation.*

1. 서론

서구에서 19 세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던 시민법 체제의 안정된 논리가 1960 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했으며 이는 가족 중심의 복지체제로의 변환과 함께 가족법과 가족제도의 개정에 있어 포스트모던한 특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김희자, 2008). 서구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족법'의 변화라는 조건으로 비교해 보자면 한국의 경우 일제 식민지시대에 확립된 '호주제'의 2005 년 폐지 전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호주제로 인해 한국사회에는 전형적인 가족상이 마련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 미혼모와 아동의 자연스러운 분리와 함께 아이에 대한 양육 대신 입양이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 개념의 변화 양상을 먼저 살펴본 후 이는 미혼모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한 이는 한국에서 가족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한국 가족제도의 변화와 미혼모 문제

2.1. 조선시대 가족의 가부장적 성격

역사적으로 볼 때 적어도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가족구조는 가부장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조은 (2005)에 따르면 조선조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고 종법 질서를 통해 체제 안정을 꾀한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였다. 유교적 가부장제는 부계 (父系), 부거 (父居), 부자 (父子)상속이라는 가부장제의 기본원칙을 제도화 하고 유교이념을 통해 가족 내에서 여성을 남성에 복속시키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핵심은 여성을 아들의 어머니로 호명하는 것이었다 (조은, 2005).

가부장제란 가장으로서 남성 혹은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하여 가족성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권위 혹은 지배를 지지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적어도 조선조 이후부터 가부장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체계와 가족형태의 근간을 이루어 오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지위와 삶을 결정짓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의 논의에 따르면 가부장제는 가족 내 권력을 상징하여 여성 억압이나 가족 내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체제라고 지적을 한다. 문옥표 (1996)는 가부장권은 유교적 가족 관계의 주요 특징의 하나이다. 전통 사회에서 가부장은 외부 사회에 가족을 대표하며,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가족원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법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 호주로서의 가부장의 권한은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며, 가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가족원은 형법으로 처벌하였다 (Deuchler 1992; 문옥표 1996). 박부진 (2002) 역시 가부장제란 가족성원들의 권리나 이익이 가장의 권리나 이익에 예속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가부장제는 '남성이 위계질서의 우위에서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와 관습의 체계'로 정의되며, 가부장적인 사회조직 원리의 기본 속성은 '남성 가장의 통솔 아래 남녀 가구원들이 물질생산과 생명의 재생산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 가부장제 형태의 가족은 가장 핵심적인 여성 억압의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가부장제는 여성억압의 사회적 체제에 저항하고 이를 해체하려는 여성학적 시각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가부장적 권력은 비공식적인 일상생활에서 주로 작용함으로써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상의 권력'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에 (박부진, 2002) 그 모순을 감지해내기가 어렵고 전복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가부장제는 위계적으로 높은 위치에 놓이며 와 절대적 권력을 가진다. 이런 지위와 권력으로 인해 한국 가족 내 가장인 남성과 다른 가족성원 간의 불평등적 관계가 규정된다. 특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규정된 것에 따라 한국 가족 내의 여성은 남성인 가장에 종속되고 의존된 존재로 규정된다. 김명혜 (2003)는 "여성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문화적 관계 하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녀출산을 뜻한다"고 논하고 있다.

2.2. 식민지 시대 호주제 확립의 의미

조선시대의 이런 유교적 이념, 즉 가부장적 지위는 일제강점 시기에 들어서서 호주제의 확립으로 표현되고 제도화된다 (조은, 2005). 조은 (2005)은 가족을 대표하는 호주자리에서 여성을 배제시킨 과정 또한 이런 유교적 가부장제의 제도화를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일상생활에서부터 뿐 아니라 공식문서에서 가장이나 호주의 자리를 내주도록 제도화 되었다 (조은, 2005). 말하자면 호주제는 식민지적 근대 사회에 들어서서 확립된 것과 관련된 가족제도이지만 여전히 가부장 사회의 지속시킨 도구 중의 하나로 2005 년 폐지될 때까지 한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다시 말하자면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 (家)' 단위로 호적 (戶籍)이 편제되는 호주제도는 부계중심의 가족제도, 즉 가부장제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며 한국 가족의 유형 및 성격에게 큰 영향을 미쳐 왔고 미혼모 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가져 왔다. 호주제 하의 가족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제 799 조 (가족의 범위)에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그 외에 본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호주에 대해서는 778 조에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해 일가를 창립 또는 부흥한 자'로 규정짓고 있다. 호주의 정의에 따른 가족모형은 '호주제도에 의한 가족구조의, 한 사람의 호주와 그의 가족원으로 구성되는 모형, 즉 한 사람의 성인 남성을 머리로, 그 주변에 처와 자식)또는 아들의 처와 그 자식)이 부착되는 것이다 (강은화, 2006). 따라서 혼인은 민법 826 조의 제 3 항에 의해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이렇게 가족법은 부 (夫) 또는 부 (父)가 호주인 가에 처와 아동이 입적함으로 구성되는 가족모델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가 호주인 호적에 아동이 입적되는 것은 일탈된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친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 자녀가 부친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모친의 성을 따른다는 것은 부계의 혈통을 모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붙게 된다 (강은화, 2006).

이와 같이 호주제도는 미혼모의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 호주제도에 따라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규범이 형성되며, 즉 남성을 중심으로 그 가족이 대표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그 남성의 관계에 따라 가족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미혼모가족은 정상적인 모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호주제도는 남성이 중심이 되며 가부장제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남편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인다.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아주 특별한 미혼모의 경우에는 호주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탈적 모습으로 보인다. 즉 미혼모가족은 새로운 가족형태로 인정을 받지

못 하고, 대신에 결손가족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 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강은화(2006)는 아직까지도 결손가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부와 모가 갖춰지지 않은 가족은 결손된 것으로, 그 자녀 또한 동정의 대상이 된다면 미혼모와 그 자녀가 한 가족을 이루는 것 또한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3. 가족법 개정에 따른 변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가족제도에서 가부장적 지위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여성지위와 가족구조 내의 남성-여성관계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한국 전통가족의 이러한 가부장적 지위가 점점 약화되고 이와 함께 가장의 지위도 축소되었으며 가장인 남성이 존재하는 전형적 가족모델의 중요성도 약화되면서 가족 내 여성의 지위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문옥표 (1996)는 일제의 식민지배기를 거치면서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유교적 여인상이 한국 여성들의 민족의식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근대 교육의 확대와 기독교 및 서양 문명의 도입, 특히 해방 이후 민주주의 이념의 성장 등은 남녀관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해방이후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직업 선택의 기회도 넓어졌고 가장 안에서도 특히 도시의 경우 어린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아들과 딸의 차별은 많이 사라졌다 (문옥표, 1996). 김혜숙 외 (1999)는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관계의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을 서구적 개인주의화로 보고 있다.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용품의 대량 생산과 상품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사회조직원리로 자리잡아 가고,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으로 자유와 평등사상이 확산됨에 따라, 가족관계에서도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간관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가족 형태면에서 소규모화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으며, 기능면에서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정서적 단위로 바뀌어가고 있으므로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와 가족주의는 해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혜숙 외, 1999). 박부진 (2002)은 한국사회가 짧은 시간 동안 산업화와 정보화라는 사회적 대변혁의 소용들이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분석한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권 운동의 영향에 따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성규범의 혁명적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다양한 정보의 유입, 컴퓨터의 생활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의 대두와 같은 사회적 변화들은 가족의 세대 간의 관계와 남녀 간의 관계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다시 정리하자면 가부장적 지위가 약화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산업화, 자본주의의 발달의 결과로 한국사회에서 서구화되고,

핵가족화 되며 핵가족 모델인 부부중심가족의 확대로 인해 가족관계는 민주화되고, 확대가족과 비교하면 부모의 간섭이 약화되었다. 한편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때문에 개인의 생활과 개인의 선택이라는 개인화/개별화도 중요시되고, 이혼의 증가, 입양 문제와 대두라는 여러 이유로 한국 가족구조 내의 가부장제적 성격은 더 이상 절대적 권력과 지위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 한편 더 깊은 맥락에서 보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여성의 가족 내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간주되고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과거와 달리 그 단계가 높아졌다. 김명혜 (2003)는 한국의 후기 산업화는 도시가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는데, 특히 가족 성원들 간의 성 (gender)관계와 가족들 간의 계급관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중산층가족들은 후기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완충막 기능을 해냈으며 남성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활동 또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공헌했다. 여성들은 '교육 어머니'로서 자녀교육의 역할, '지위생산 (status-production) 노동의 역할, 선물교환 역할, 비공식적 경제행위, 정보교환,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가족 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역할로부터 여성은 점점 자기의 지위를 획득했다. 김명혜 (2003)는 여성들의 이러한 역할들로 인해 과거와 다르게 가족 내의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가족구조 내의 가부장제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현상 뿐 아니라 법제도의 측면에서 가부장적 지위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바로 한국 가족법 개정의 '성불변 원칙'의 폐기와 2005 년도의 '친양자 제도' 도입, 그리고 2005 년도의 호주제 폐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법의 개정과 함께 미혼모와 같은 비전형적인 가족으로 여겨져 왔던 가족모델에 대한 많은 논리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실제적으로도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들은 새로운 생활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한국 가족법 개정에서 '성불변 원칙'의 폐기, '친양자 제도' 도입과 호주제 폐지를 살펴봄으로써 미혼모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2.3.1. '성불변 원칙' 폐지 와 '친양자 제도' 도입

한국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성불변의 원칙'은 자는 부 (父)의 성 (姓)에만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의 혈통이 강조된 이 원칙은 결과적으로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와 그 지위를 훨씬 더 강화시켜 왔다. 이 원칙 하에서 미혼모 가족, 이혼모 가족, 재혼 가족과 같은 전형적인 가족으로 여겨지지 않은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이 편해지도록 성을 변경하고 싶어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미혼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가 모의 성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이 다른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이 된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지위의 약화와 함께

2005 년도에 정식적으로 이 '성불변의 원칙'도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친양자 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자가 자기의 계부나 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인정함으로써 미혼모가 독립적으로 가족을 이루는데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친양자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양자 (養子)는 양친 (養親)과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양친의 친자와 같이 실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를 위한 양자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이후부터 부계혈통을 고집하게 되어 오로지 가를 계승하기 위한 동성동본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었으나 폐쇄적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자신고가 성행하게 되었고, 국내입양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1990 년의 민법개정으로 동성동본양자는 폐지되고 이성양자가 허용되었으나,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수 없어 이성양자의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1995 년에는 국내입양 촉진하기 위해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입양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 공시되어 국내입양을 촉진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부와 자의 성이 달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양자제도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민법개정안에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1998 년에 이어 2000 년에도 국회에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시행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5.2.28. 제 252 회 임시국회 제 6 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대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비로소 시행되기 되었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아동이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편입, 동화되는 제도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리실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그 도입이 주장되었다 (조경애, 2008). 친양자 제도는 입양의 성립 단계부터 국가가 개입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며 원칙적으로 파양이 허용되지 않는 완전양자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로 보게 된다 (조경애, 2008).

2.3.2. 호주제 폐지

지난 2005 년 3 월 31 일에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는 크게 완화되었다 (강은화, 2006). 이에 따라 한국가족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졌고 미혼가족도 새로운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 한국의 가족 담론도 상당히 많은 부분 변화하게 되었다. 첫째, 가족을 부 중심의 집단적 체계로 보는 시각에서 개별적 가정으로 보게 되는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둘째, 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녀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바뀌게 된 것이고, 셋째, 모 중심의 가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 즉 이혼한 사람들 보다 더 비정상이라고 여기던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것이라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에서 규정되고 강조되었던 부를 중심하는 가족 모델은 약화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점차 미혼모와 같은 부 (父)의 역할이 부재된 가족모델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어지다. 때문에 그들의 생활환경도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한국제도의 변화과정에서 미혼모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호주제도 폐지 전후 가족구조 내 가부장적 성격이 어떤지, 이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가족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항상 국가와의 관계에서 파악될 수 있다. 가족은 원래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동시에 공적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 김광억 (2002)은 가족과 종족은 사적인 영역인 동시에 국가에 의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간섭과 통제를 받는 공적 영역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는 가족을 국가수요에 따른 노동력의 생산기제로 보기 때문에 이상적 가족형태의 제시, 효자, 효부상 및 사임당 뽑기와 같은 모법주부상의 제정, 가족 구성 자격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제정하며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 · 문화적 캠페인을 등을 통하여 가족 개념과 모델에 대하여 끊임없이 간섭한다 (김광억, 2002). 미혼모가족과 관련된 법제도인 '성불변 원칙', '친양자 제도', '호주제', '입양 정책' 등은 바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만남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해 끊임없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국가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책은 끊임없이 한국 가족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미혼모 문제도 이러한 국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가족과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가 가족의 이런 성격을 인식해야 하면서 가족정책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미혼모 복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정책에서 젠더 (gender)를 중심에 두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강은화, 2006,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3 (3): pp 39-59.

김광억, 2002 “국가와 사회, 그리고 문화· 가족과 종족 연구를 위한 한국 인류학의 페러다임 모색" 한국문화인류학 J 35 (2): pp 303-336.

김혜숙 외 , 1999 “한국 가족/친족 연구의 쟁점 · 도시중산층과 제주 도의 가족/친족에 대한 연구를 중섬으로" 가족과 문화』 11 (1): pp 1-22.

김명혜, 2003, 현대 가족과 성 역할의 변화, 「“가족”과 “나” 사이에서: 여성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김은희, 1993 “일, 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J , 문학과 지성사, pp 81-120.

김희자, 2008, “서구의 가족법 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 『경제 와 사회』여름호 (통권 제 78 호), 대전대학교.

이재경, 2005,「가부장적 권위 이후의 한국 가족: 젠더 정치의 각축장」,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이재경, 2006,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에 관한 공청회”, 『국가여성가족위원회』.

조 은, 2005,「세계화 시대 한국 가부장제: 모성, 부계혈통주의, 글로벌자본의 경합」,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조은.이정옥.조주현, 1999,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조은희, 2007, “가족관련법의 입법적 동향에 대한 검토”, 『고려법학』49. 조경애,

2008, "친양자제도의개선방향 (사례를중심으로)", 『가족법연구』, 한국

가족법학회.

박부진, 2002, “한국현대가족에서의 가부장의 지위”, 여성가족생활연구, Vol.7, 학술저널.

문옥표, 1996, “가족내 여성지위의 변화 : 유교전통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63 ('96.7)

Cheal, D, 1991, *Family and the State of Theory*, Hemel Hampstead: Harverster Wheatsheaf.9

David Cheal, 1993, *Unity and Difference Postmodern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14 (March)

Deuchler, Martina,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Cambridge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Kim, Kwang-Ok, 1996, "The Reproduction of Confucian Culture in Contemporary Korea ," Tu Weiming ed. , Confucian Tradition In East Asian Modern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02-227.

Lorraine Fox Harding, 1996, *Family State and Policy*, Mac Millan.

Olson, D.H. & DeFrain J, 1997,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Gittins D., 1993, *The Family in Question: changing households and familiar*.

Okin S, 1989, *Gender, Justice and the Family: Some feminist questions*, Longman.